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연*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말라본시티 빅터네타 애비뉴 라살아라네타대학
수업	<p>수업은 총 8교시이었다.</p> <p>어학원도착 후 입학식과 레벨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로 수업을 듣게된다. 수준별로 책도 각각 다르게 배부.</p> <p>BGC(12명/3교시) SGC(6명/2교시) MTM(1명/3교시)</p> <p>빅그룹수업 : 소그룹2개가 1개의빅그룹으로 이뤄진다.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정말 좋은 시간!! 맨투맨시간보다 영어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그래서 더 재밌다. 내용도 토익스피킹, 동영상시청등 멀티미디어 수업이 대부분이다.</p> <p>소그룹수업 : 맨투맨 때 보다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대그룹보다는 적게 말하는 정도, 이 시간에 학생인터뷰, PPT발표를 하게 된다.</p> <p>맨투맨수업 : 1:1이라서 정말 영어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킹1(말하기) : 교재본문 읽고,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답하기 - 스피킹2(발음,단어) : 발음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배웠던대로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r/이나 /l/과 같이 혼동되는 발음을 잡을 수 있게 되어서 좋다. - 라이팅1(문법) : 알고있는 문법을 다시 영어로 배우는 정도, 에세이와 같은 작문을 할 때 '나 ' 대문자 표기법등을 배웠었다. 매주 1~2회 영어 에세이 제출...ㅎㅎㅎ <p>맨투맨시간에는 프리토킹하는 시간이 자주 있어서, 친구랑 얘기하는 듯이 하면 되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ㅎㅎ</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민도르섬, 마닐라투어 두 곳을 했다. 그 외에도 따가이따이섬, 팍상한폭포. 이 있다. (마닐라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비용 발생.)</p>

	<p>민도르섬 : 배를 좀 길게 타고가는데, 멀미가 심하다. 그리고 배안은 덥다. 그러니 부채나 선풍기들고가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말 바다가 너무나도 이쁘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다색, 이쁘게 입고 인생사진찍기 좋은곳. 가서 제트스키나 플라잉피쉬 등 여러 가지 물놀이를 따로 신청해서 탈 수 있는데(이때 또다른 추가비용 대략1000페소(25000원정도)), 가격은 흥정이 가능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가는 것이 이득이다. 상점들도 즐비해서 페소 많이 들고 가는 것을 추천. 호객행위가 너무나도 정말 심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p> <p>마닐라투어 : 리잘파크, 인트라뮤스 등등 학교에서 정해진 코스를 대그룹 별로 선생님 1분하고 같이 투어한다.</p> <p>어딜가나 관광지에는 스트리트CHILDREN아이들이 있고, 소지품을 항상 주의해야한다.</p> <p>가벼운 우산들고가서 비오는날에는 우산, 햇볕에는 양산으로 이용하면 편하다.</p> <p>방수팩은 가서 구매시 비싸므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엄청 더운여름이나, 견딜만한 여름이 나로 나뉜다. 다행히 건기 때 가서 비 온날이 그닥 많지 않았고, 온다해도 몇시간내렸다 그침을 반복한다. 대략 온도는 25도 전후라 견딜 만 했었다. 수업들으러 갈 때는 오히려 에어컨이 켜서 가디건을 항상 챙기고 다녔다.
안전	학교에서 말한 금지사항만 지켜도 충분하다. 저녁이 되면 가로등 불빛이 한국만큼 밝지 않아서 항상 셋이상 다녀야 한다. 택시를 이용해서 호텔로 돌아갈 때도 항상 큰길이용해서 가야하고(택시기사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최단거리로 갔더니 이상한 골목길로 많이 갔었다. 그때, 현지기사분도 여기맞냐며, 무섭다하셔서 우리도 같이 무서워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아이들이 '안녕'을 수도 없이 외치므로 나중엔 무시하게된다. 필리핀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했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전에 파견되었을때는 3인실을 썼었다했었지만 이번부터 2인실로 썼었다. 줄리비라는 패스트푸드점 건물 윗층을 이용했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너무좋았다. 통금은 밤 10시까지. 방에는 2층침대 두 개와 책상 세 개가 놓여있지만 2명에서 사용했다. 방마다 화장실한칸 포함. 음식을 방에서 먹

	<p>지 않는다면 벌레가 나올 일은 전혀없다.</p> <p>침대시트와 베게, 이불(극세사담요)은 자주 갈아줬었고, 청소해주는 분도 너무나 좋았다. 방에 수납공간은 충분했었고(옷걸이 구비), 옷장에는 열쇠가 있어 불안하면 잠그고 다닐 수 있다. 매트리스는 그냥 스펀지였지만 폭신했다. 복도 양 끝에 다목적실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저녁시간이 지나면 운영을 안한다.</p> <p>빨래는 매일 맡길 수 있었으며(매일 밤9시 맡기고 찾을수 있다. 비용은 1kg 약 25페소) 섬유유연제냄새가 너무 좋았다! 당시 초반에 계약했던 세탁업체가 미숙해서 의류분실이 있었다. 잃어버려도 크게 슬플옷들은 안들고가는 것이 좋다.</p>
식사	<p>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개인적으로 호스텔 급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거의꼬박 삼시세끼 챙겨먹었다. 후반이 될수록 배식받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전 식사시간에 남게된 음식들은 다음 급식 때 또 나온다. 국이 너무나 맛있었다. 주말에는 시내에 나가 필리핀 현지음식을 먹었다.</p>
교통	<p>수업은 모든 학교건물이 호스텔 바로 앞에 있어 10분안에 갈수 있다.</p> <p>시내로 나갈때는 주로 우버, 그랩택시 어플을 이용해나갔다. 그랩보다는 우버가 더 좋다. 차량도 쾌적하고, 가격도 더 저렴했다. (그랩은 부킹비 30~50페소를 받는다.)</p> <p>그 외에도 지프니(7페소)와 트라이시클이 있지만 필리핀의 심각한 교통체증에서 매년냄새 맡으며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액티비티비용, 기념품, 기타모든비용)	300,000+12,500	준비한 생활비30만원+ 출국전날 돌려준 기숙사보증금(500페소)으로 생활비추가비용으로 사용
합계	100,000,0	끝나갈때쯤되면 페소가 부족한사람 들이 많아진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블로그 후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기념품으로는 무엇을 사야 하고 필리핀음식, 교통 등 자세히 포스팅 한곳이 많았다. 꼭 찾아보고 어떤 것은 꼭먹고 어떤것은꼭 사야 할지 정해놓고가면 정말 편하다. 이번에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 블로거들이 많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말 인터넷이 느리다.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되어있지만 방마다 케바케이다. 가서 스마트폰 데이터무제한으로 개통하여도 700MB이상 사용하면 느려진다. (원래 느린데 더 느려진다.) ppt발표를 위한 자료를 찾는데 노트북으로는 인터넷이 안되서 힘들었다. 인터넷 필요없는 주제를하면 수월하다!

갈 때 버리고 올 물건들을 들고가면 좋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짐이 최소 1.5배는 커지는 것 같다.

총비용을 100만원으로 맞추려고 생활비 30만원을 준비해 갔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이왕가는 필리핀이면 아끼지말고 하고 싶은거 하고오는 것이 더 알찰 것 같다.

필리핀은 그냥 하루종일 러시아워다 교통체증이 정말 심하다. 가다서다를 반복해서 멀미가 있는사람은 멀미약 챙겨가는것도 나쁘지않다.

어플설치) 우버 또는 GRAP 택시어플, 구글번역기(에세이 작성시 유용), 구글지도(해외에서는 구글지도가 가장 정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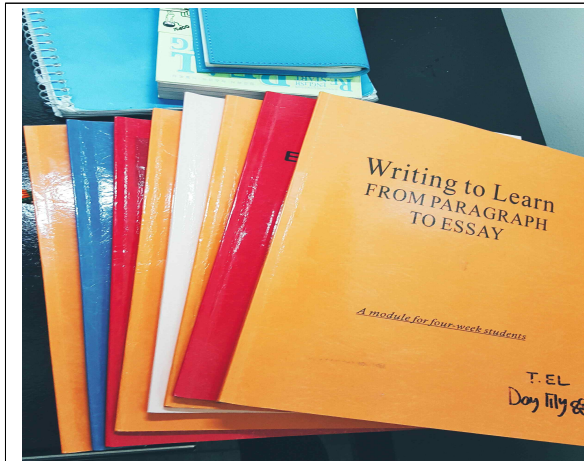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1,2째에는 4일수업 3일 자유시간이라 뽀뽀하게 공부한다는 느낌이 나질 않았다.

하지만 3주째 부터는 5일 수업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첫 수업이 8시시작이라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아침먹는 것이 잠이 많은 나로써는 너무힘들었다. 모든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호스텔로 돌아오면 정말 나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꼈었다. 아침에는 정말 한국을 가고 싶지만 저녁에는 1년만 더 필리핀에 있으면 영어향상이 분명 될 것 같은 느낌이여서 필리핀에 더 있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한달동안 많은걸 하지는 못했지만 적지않는 것을 얻고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어떤선생님은 같이 수업하면서 즐았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적어도 나를 맡아준 선생님들은 전부 좋았다. 가기전에 뭐든지 단어를 뵈어보자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임했다! 후회없다! 어딜 가든지 정말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으면 녀살중계 먼저 말걸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과목별로 교재가 있다.



이번에 사용한 호스텔은 쾌적했다.



호스텔 앞



빨래를 맡기면 개인당 봉지로 빨래 하나하나 잘개서 향기رو움과 같이 배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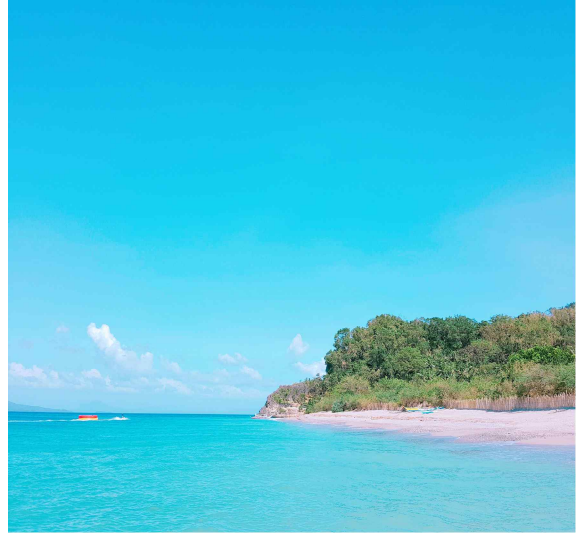
마닐라투어 BGC사람들이랑



급식은 한식이고, 너무나도 맛있다..!



민도르섬에서 선글라스는 필수



민도르 바다색이랑 하늘색이랑 같다.